

제망매가 해독의 일고찰

고 정 의

I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재를 울리며 부른 노래다.¹⁾ 이 노래는 다른 향가와 더불어 소창진평(1929) 이래 강길운(1995)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독 중에는 어느 정도 해독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행과 구의 분절에서부터 어형이나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거나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대국어의 체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식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으나, 해독 방법을 달리하거나 잘못 적용한 데 말미암은 경우도 있다. 해독의 차이가 고대국어의 체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문자 운용상의 문제이거나 해독상 이두나 구결자료 등 차자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등이라면 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독의 차이와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창균(1994), 강길운(1995)을 참고할 수 있다. 자세한 연구사적 검토는 이들로 미루고, 본고는 이들 해독에 나타나는 의문이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해독을 검

1)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忽有驚飈吹紙錢飛去 向西而沒 歌曰...(삼국유사 권5)

토하면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해독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향가 해독은 어휘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법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특히 ‘毛如’의 독법 그리고 ‘毛冬乎丁’과 ‘待是古如’의 어미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로 한다.

II

2.1. 生死路隱.

‘生死路隱’은 ‘生死’와 ‘路’의 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독되고 있다.²⁾

(1) 生死路는 : 양주동	죽슬길 : 이탁
싱스로는 : 정렬모	죽사리 짧은 : 김선기
生死길은 : 소창진평, 지현영, 김준영	죽사리 길흔 : 서재극
生死길흔 : 김완진, 정창일, 박창원	죽살이 길은 : 강길운
生死길은 : 유창균	죽사릿 길은 : 홍기문

양주동(1965)은 ‘生死’와 ‘죽살(死生)’의 어순의 차이 때문에, 정렬모(1965)는 ‘生死’와 ‘路’ 사이에 속격 조사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독한 것이다. 당시의 한자어 일반화 여부나 한자어와 고유어의 조어 규칙을 밝힐 수 없는 현재로서는 ‘생사로’로 음독하거나 ‘生死길’ 또는 ‘죽사리길’로 읽을 수도 있다(김완진 1980). 한자어로 음독하기보다는 훈독을 지향하는 면에서 ‘生死길’로 읽는다.

2.2. 此矣有阿米次盼伊遣

이 행은 대체로 ‘此矣有阿米次盼伊遣’와 같이 세 구로 분석하고 있으

2) 해독은 향가 연구 단행본의 것만을 제시하고 개별 논문의 해독은 해당 항목의 논의에서 다룬다.

나, ‘此矣 有阿 米次盼伊遣’(이탁 1958, 김선기 1993), ‘此矣 有阿 米次盼 伊遣’(정렬모 1965), ‘此矣 有阿 米 次盼 伊遣’(박창원 1995)로 분석하기도 한다.

2.2.1. ‘此矣’는 ‘矣’을 음독하느냐 훈독³⁾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독되고 있다.

- | | |
|-------------------------|-----------|
| (2) 이에 : 소창진평, 김완진, 강길운 | 이리 : 홍기문 |
| 예 : 양주동 | 이대 : 정렬모 |
| 이희 : 지현영, 이탁, 서재극 | 이디 : 유창균 |
| 이의 : 김준영 | 잉어과 : 김선기 |

‘此’는 ‘이’로 훈독할 것이므로 문제는 ‘矣’의 독법인데, 이는 ‘의’ 또는 ‘디’로 읽히는 차자이다. ‘此矣’는 대체로 ‘이+처격조사’로 해독되고 있으나 유창균(1994)은 ‘이+명사(디)’(여기에)로 해독하고 있다.⁴⁾ 그런데 ‘矣’는 다음과 같이

- (3) 1. 耆郎矣 貌史是史 蕪邪(찬기파랑가 5)
 2. 入良沙 寢矣 見昆(찬기파랑가 3)
 3. 本矣 吾下是如馬於隱(처용가 7)
 4. 夜矣 卯乙 抱遣去如(서동요 4)
 5. 放冬矣 用屋尸 慈悲也 根古(도천수관음가 1)
 6. 哀反 多矣 徒良(풍요 3)
 7. 今日 此矣 散花 唱良(두술가 1)
 8.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두술가 3)
 9. 乾達婆矣 游烏隱 城叱盼良 望良古(혜성가 2)
 10. 三花矣 岳音 見腸烏尸 聞古(혜성가 5)
 11. 仰頓 面矣 改衣賜乎隱 冬矣也(원가 4)

3) 김완진(1985:14)에서 ‘디’를 ‘矣’의 古訓으로 추정한 바 있다.

4) 유창균(1994)과 비슷한 정렬모(1965)의 ‘이대’(連하-)는 ‘님다’의 ‘님’과 ‘다히다’의 ‘다히’의 합성으로 본 것으로 전연 해독이 다르고 독법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 12. 行尸浪 阿叱 沙矣以支如支(원가 6)
- 13. 自矣 心米(우적가 1)
- 14. 伊 知皆矣 爲米(청불주세가 7)
- 15. 魂是 去賜矣(도이장가 3)

명사 뒤에서는(3.1, 3.4-11, 3.13) 속격이나 처격의 어미 ‘-의’로, 동사 어간 뒤에서는(3.15) 접속어미 ‘-디’⁵⁾로 해독된다. 이것은 이두에서의 용법과 일치한다. 따라서 ‘此’가 대명사라면 처격으로, 관형사라면 명사 ‘디’로 해독되어야 한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의 ‘디’는 주로 관형사형의 피수식으로 나타나고 관형사 ‘이, 그, 더’가 선행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뒤의 ‘彼矣’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의 형태 ‘이에’로 읽는다.

2.2.2. ‘有阿米’는 대체로 ‘이사매’로 해독하고 있는데, ‘米’를 ‘有阿’와 분리하여 뒷구에 붙이거나(정렬모, 김선기) 독립된 어휘로 보기도 한다(박창원).

(4) 잇아매 : 소창진평	이스매 : 강길운
잇아며 : 유창균	잇음 : 이탁
잇사매 : 김준영	*이사 : 김선기
이사매 : 양주동, 지현영, 서재극, 김완진	*이쇼디 : 정렬모
이사미 : 홍기문	

‘이사매’는 15세기 국어의 ‘이시-’에 비추어 ‘이시+아매’로 분석되는데, ‘아매’의 ‘아’의 기능이 무엇인가는 명확하지 않다.⁶⁾ ‘이사매’가 ‘이시-’의 명사형이라면 ‘이쇼매’나 ‘이슈매’가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有阿米’에서 ‘米’를 분리시켜 ‘有阿’를 한 단위로 잡으면 ‘이시+아/어’로 해독되어 이 의문은 해소된다. 박창원(1995:418)은 이런 관점에서 ‘米’를 독립시켜 부사 ‘매’로 해독하고 ‘去內尼叱古’의 ‘고’의 문형에 부응하는 의문사로

5) 어미 이외에 ‘디’로 읽히는 예로는 ‘本矣(본디)’를 들 수 있다.

6) 김완진(1980:125)은 ‘有阿米’의 ‘阿’를 ‘-으’에 대한 ‘-안’, ‘-으니’에 대한 ‘-아니’와 같이 ‘-으매’에 대한 ‘-아매’로, 안병희(1987:1062)는 중세국어의 ‘-니’에 대한 ‘-아니/-어니’의 ‘-아/-어’와 같은 선어말어미로 추정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米’는 문맥상 구속형어미로 해석되므로 ‘-며’, ‘-미’로 보기는 어렵다. 정렬모(1965)의 ‘이쇼디’는 ‘이쇼(有)+디(阿)’의 분석과 독법에 따른 것인데 ‘이쇼’는 ‘이사’의 부사형 ‘이사ㅅ이셔’와 거리가 멀고 혼자 가자 ‘阿’(디)의 독법은 문자 운용의 원리상 고려할 수 없다. ‘有阿米’의 표기에 따라 ‘이사매’로 읽히, ‘米’와 ‘매’의 음가 문제, ‘米’의 의문사 여부와 그에 따른 고대국어의 의문법 체계 등은 앞으로 해명될 과제로 남는다.

2.2.3. ‘次勝伊遣’는 그 동안의 해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해독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구절은 ‘次’를 음독하느냐 혼독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次’와 ‘伊’를 모두 혼독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독되고 있다.

(5) 저히고 : 소창진평, 양주동, 홍기문	머뭇그리고 : 김완진
즈홀이고 : 지현영, 유창균	버글이고 : 강길운
즈홀이고 : 김준영	*미지 깔이겨 : 김선기
어줄이오 : 이탁	*메지홀 지견 : 정렬모
멈흐리건 : 서재극	

‘저히고(두러위하), 즈홀이고(낱-, 의지하-)?, 즈홀이고(죽-) 등은 모두 ‘次’ 이하 네 자를 내리 음독한 것으로 이른 바 讀·假의 원칙⁸⁾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선기(1993)의 ‘미지 깔이겨’와 정렬모(1965)의 ‘메지홀 지견’도 구의 분석은 다르지만 ‘米次’를 음독한 예다.⁹⁾ ‘米’를 ‘次’와 함께 한 단어로 읽으면 음독할 수밖에 없다. 마땅히 혼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탁(1958)의 ‘어줄이오’(어찌랴고)는 ‘次’를 ‘엇’의 훈가자로 본 것으로 讀·假의 원리에 어긋난다.

‘次勝伊遣’가 차자의 원리에 따라 해독된 것은 서재극(1979)의 ‘멈홀-’

7) 지현영(1947)은 ‘낱-’로, 유창균(1994)은 ‘의지하-’로 해독하고 있다.

8) 물론 향찰표기법이 ‘讀字+假字’의 구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풍현(1991:526) 참조. 그리고 讀·假의 원칙, 차자의 체계에 대하여는 남풍현(1981:11-8) 참조.

9) 자세한 해독에 대하여는 김선기(1993:318)와 정렬모(1965:267-8) 참조.

(멈추-), 김완진(1980)의 ‘머뭇-’(머뭇거리-), 강길운(1995)의 ‘버글’(차치하-)'이다. 그러나 ‘멈홀-’과 ‘머뭇그리-’는 ‘次’의 훈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버글’은 ‘副’(버글부 자회 중 1)와 ‘貳’(버글시, 자회 하 33)의 훈에서 유추한 것인데 대명률직해의 ‘次’의 대역어 ‘犯斤’¹⁰⁾으로 보아 오히려 ‘버근’으로 훈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창일(1987)과 박창원(1995)은 ‘次盼伊遣’를 ‘次盼’과 ‘伊遣’의 두 구로 분석¹¹⁾, 해독하고 있는데 그 간의 해독을 반성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된다. 박창원(1995)은 ‘次’는 명사, ‘伊’는 동사 ‘이-(戴)’로 보아 ‘次盼伊遣’을 ‘次를 이고’(받아들이고)로 해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이 따른다. 동사 ‘이-’의 차자로는 ‘伊’보다 ‘戴’나 ‘頂’이 차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¹²⁾ 실제로 향가에 쓰인 ‘伊’의 용례 중 동사로 해독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 (6) 1. 佛伊衆生毛叱所只(수회공덕가 3)
2. 吾焉頓部叱遂好友伊音叱多(상수불학가 4)
3. 身靡只碎良只塵伊去米(상수불학가 5)
4.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보개회향가 10)

모두 훈독되고 음독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달리 차자자료에서 ‘伊’가 동사로 음독된 예도 보기 어렵다.

향찰의 표기 원리에 비추어 ‘次’는 훈독되어야 하지만 이 구의 독법을

10) 犯斤 待病男丁 無在乙良(명률01:19b)

同犯罪人內良中 犯斤 家長乙 坐罪齊(명률01:32a)

他餘 犯斤 同腹 無去有乙(명률12:08a)

犯近 馴良中 遞馬 不冬爲在乙良(명률17:05a)

11) ‘伊遣’을 앞 구와 처음으로 분리시킨 것은 정렬모(1965)지만 구의 분석 방법과 해독의 결과는 이들과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하여는 정렬모(1965:268) 참조.

12) 이러한 예를 박창원(1995:421)에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戴 일디(자회 하 10)

하늘홀 이고 싸해 셔며:頂天立地(금삼 2:11)

이 막슴 매여 이요몬:此心荷戴(남명 하 64)

외로원 뒷부뒷 돌히 었는 驛에:狐峰石戴驛(두해 초 22:36)

분명히 밝힐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이 노래의 구성과 맥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4행의 '毛如云遣去内叱古'와의 의미 맥락으로 보아 잠정적으로 김완진(1980)의 '머뭇그라-'에 따르되 정확한 해독은 후일로 미룬다.

2.3. 吾隱去內如辭叱都

이 행은 거의 '吾隱去內如辭叱都'와 같이 세 구로 분석하여 왔는데, 정창일(1987)은 '都'를 독립된 어휘로 보아 다음 행 첫머리로 옮기고 부사 '다'로 해독하고 있다.

2.3.1. '吾隱'은 대체로 '나는'으로 해독하고 있으나 '나은'으로 해독하기도 한다.

- (7) 나는 : 소창진평, 양주동, 지현영, 이탁, 김완진, 홍기문, 정렬모
- 나은 : 김준영
- 난 : 서재극, 강길운, 유창균
- 나난 : 김선기

고대국어에서 '는'과 '은'의 교체 여부에 따라 '隱'의 독법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15세기 형태에 따라 '는'으로 읽는다.

2.3.2. '去內如'는 '가나다'로 해독된다. '內'와 '如'가 선어말어미 '는'와 어말어미 '다'의 표기에 쓰인 차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강길운(1995)의 '가느져'¹³⁾는 전통적 독법과 거리가 멀다.

- (8) 간다(홀) : 소창진평
- 가나다 : 김선기
- 가나다 : 양주동, 지현영, 이탁,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유창균, 홍

13) 강길운(1995:209)은 '如'를 '져'(서술형어미), '셔'(희망형어미), '다'(기타)로 구분, 해독하고 있다.

기문, 정렬모

가느저 : 강길운

그런데 이미 안병희(198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去內如’의 해독에는 중세국어의 인용문의 특징과 관련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곧 중세국어에서 인용문이 수식어로 될 경우 (9)와 같이 ‘ㅅ’이 첨가되는 특징으로 보아 ‘가느닷’의 ‘ㅅ’에 해당하는 ‘ㄷ’의 위치가 ‘辭’와 바뀌었거나, ‘ㅅ’에 해당하는 표기가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¹⁴⁾

(9) 1. 頭蛇는 뼈리 브리닷 마리니(법화 1:32)

2. 塵沙는 할씨니 塵ᄃᆞᆫ 沙ᄃᆞᆫ닷 마리라(금삼 2:15)

3. 尊ᄃᆞᆫ시닷 브디라(석상 7:5)

전사과정 중 ‘ㄷ’이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辭’와 위치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누락보다는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는 것이 미해결의 ‘ㄷ’의 성격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전의 기록은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3.3. ‘辭ᄃᆞᆫ都’는 대체로 ‘말ㅅ도’로 해독되고 있는데, ‘ㅅ’의 기능이 무엇인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10) 말ㅅ도 : 소창진평, 양주동, 지현영, 김준영, 김완진, 유창균, 홍기문, 정렬모

말ᄃᆞᆫ도 : 김선기,

말삼ㅅ두 : 강길운

말뜨 : 서재극

14) 이러한 특징 외에 박창원(1995)은 ‘-다’로 끝나는 인용문은 아래에서 보듯 체언에 직결되지 않고 반드시 용언과 연결되는 특징에 비추어 ‘辭’가 동사로 해독될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구문의 특징에 따른 ‘辭’의 독법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박창원 (1995:425-6) 참조.

和尙은 갓가비 이셔 외오다 ᄃᆞᆫ 마리니(석보 6:10)

菩薩이시다 ᄃᆞᆫ 나라(월석 1:5)

아들ᄃᆞᆫ히 아버 죽다 듣고(월석 17:21)

말도 : 이탁

양주동(1965), 정렬모(1965), 김준영(1987) 등은 ‘叱’을 경상도 방언의 된소리 내지 축음으로 보고 있고, 서재극(1975)의 ‘ㅆ’나 유창균(1994)의 ‘말사도’도 이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¹⁵⁾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된소리의 국어 사적 생성시기나 ‘叱’의 용자법과 거리가 멀다. ‘叱’이 ‘말도’의 축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말도’로 해독할 수도 없다. ‘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叱’이 말음첨기라면¹⁶⁾ ‘辭叱’은 ‘맑’ 또는 ‘마룻’ 정도로 해독할 수 있을 것(이기문 1989)이고, 속격의 표기라면 ‘都’는 명사로 해독될 수 있을 것이다(박창원 1995). 이러한 어려움은 안병희(198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辭叱都’가 잘못된 표기이거나 해독의 잘못에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辭’와 위치가 바뀌었거나 ‘辭’가 ‘뜰’ 또는 ‘맛’¹⁷⁾으로 해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지지할 어떤 단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辭叱’과 ‘都’를 분리¹⁸⁾하여 해독할 수도 없다. 원전의 표기와 달리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문백상 ‘云遣’의 목적이 대응어이므로 잠정적으로 명사 ‘마룻’으로 읽는다. ‘叱’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보류하기로 한다.

2.4. 毛如云遣去內叱古

2.4.1. ‘毛如’는 대부분 부정부사 ‘몰’으로 해독하여 왔으나 소창진평(1929)은 ‘모르다’, 정렬모(1965)는 ‘없다’의 의미로 해독하였다.

(11) 몰으다 : 소창진평

모든 : 김준영, 홍기문

15) 서재극(1975:38)은 ‘도’가 현재의 경상도에서와 같이 이미 신라 시대에 부분적으로 ‘ㅆ’로 변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유창균(1994:715)는 감탄조사 ‘도’의 뜻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6) ‘叱’이 명사의 말음첨기로 쓰인 예로 ‘城叱’(갯)(혜성가 2)를 들 수 있다.

17) 이두자료에서 ‘味’는 ‘맛’으로 읽히고 있다.

18) 이런 예로는 정창일(1987:484-5) 참조. 그는 명사 ‘말식’(辭叱)과 부사 ‘모두, 다’(都)로 해독하고 있다.

몰다 : 양주동, 김선기, 김완진, 강길운 몰 : 지현영, 이탁
 모돌 : 유창균 음산 : 정렬모
 모다 : 서재극

그런데 종래의 해독에서와 같이 ‘毛如’를 부정부사 ‘몰다’로 해독하는 데는 두어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몰’은 ‘毛’의 독음이 될 수 없다. ‘毛’가 ‘몰’의 표기라면 ‘毛叱’ 정도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가에 쓰인 ‘如’의 용례로 보아 이를 ‘:다’의 차자로 보기는 어렵다.

- (12) 1. 花盼 折叱可 獻乎理音如(헌화가 4)
2. 爲腸尸知 民是 愛尸 知古如(안민가 4)
3. 爲內尸等焉 國惡 太平恨音叱如(안민가 10)
4. 郎也 持以支如腸烏隱(찬기파랑가 7)
5. 夜人伊 遊行如可(처용가 2)
6. 本矣 吾下是如馬於隱(처용가 7)
7. 夜矣 卯乙 抱遣 去如(서동요 4)
8. 來如 來如 來如(풍요 1)
9. 吾隱 去內如 辭叱都(제망매가 3)
10. 此矣 彼矣 浮良落尸 葉如(제망매가 6)
11. 道修良 待是古如(제망매가 10)
12. 今吞 藪未 去遣 省如(우적가 4)
13. 此如 趣可伊羅行根(총결무진가 5)

(12.10), (12.13)과 같이 명사 ‘葉’, ‘此’ 다음에 통합된 외에는 선어말어미 또는 어말어미 표기에 쓰이고 있다. 향가에서 ‘如’가 ‘:다’를 표기한 용례가 없거니와 다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 ‘如’는 명사 뒤에 온 경우를 제외하면 ‘동사 어간+如’ 또는 ‘동사 어간+如+어미’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毛如’를 부사 ‘몰다’로 읽으면, 이는 ‘如’가 부사에 연결된 유일한 예가 된다.

‘毛如’가 양주동(1942) 이래 부정의 부사 ‘몰다’로 해독되어 온 것은 문맥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如’는 ‘동사 어간+如’ 또는 ‘명사+如’의 구성만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

면 ‘毛’는 동사 또는 명사로 해독하여야 된다. 그런데 문맥상 ‘毛’는 동사로 해독될 가능성은 없으므로¹⁹⁾ 명사로 해독되어야 한다.

‘毛’를 명사로 해독한다면 이는 ‘털’로 혼독되고, ‘毛如’는 ‘털같’ 정도로 해독할 수 있다. 그러면 ‘毛如云遭去內尼叱古’는 ‘(나는 갑니다란 말도) 털같이 아주 가늘고 힘없이 겨우 말하고 가느냐’ 정도로 해석되어 육친간의 애절한 사별의 묘사로 볼 수 있다. ‘毛’를 ‘털’로 혼독하면 ‘毛’를 ‘몰’ 또는 ‘모’로 읽는데 따르는 의문이 소거되고, 명사 뒤에 오는 ‘如’는 반드시 혼독된다는 규칙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如’의 용자법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毛如’를 단순히 부정의 부사로만 해독하는 태도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毛如’를 ‘명사+如’로 해독하면 부사 ‘몰’의 차자로는 자연히 ‘毛冬’만이 남게 된다. 문맥으로 보아 ‘毛如’가 부정의 ‘몰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상의 논의에 따라 ‘털같’으로 읽는다.

2.4.2. ‘云遭’는 15세기 국어의 ‘니르고’나 ‘니르고’로 해독된다. ‘遭’은 서재극(1975)에서만 ‘전’으로 읽고 나머지는 모두 ‘고’로 읽고 있다. 전통적 독법에 따라 ‘고’로 읽는다.

- | | |
|-------------------------|----------------|
| (13) 일고고 : 소창진평 | 니르고 : 김완진, 강길운 |
| 널고 : 양주동, 지현영, 홍기문, 정렬모 | 니르오 : 이 탁 |
| 니르고 : 김선기, 김준영, 유창균 | 니르전 : 서재극 |

동사 ‘니르’는 모음어미 앞에서 ‘니르-~닐-’의 교체체를 보이는데 고대 국어에서 ‘니르-~닐-’과 같은 교체가 자음어미 앞에서 가능한 것이었는가는 의문이다.

2.4.3. ‘去內尼叱古’는 ‘內(느)’와 ‘叱(사)’의 독법으로 미루어 ‘가는닛고’로 해독된다

- (14) 가닛고 : 소창진평
 가느닛고 : 강길운

19) 유일하게 정렬모(1965는 이를 ‘없다’ 내지 ‘없다가’로 해독하고 있으나 이는 뒤의 ‘云遭’(옮겨)과 함께 ‘毛’와 ‘云’을 현대어에 맞추어 음독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정렬모(1965:269-270) 참조.

가는닛고 : 양주동, 지현영, 이탁,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유창균,
 홍기문, 정렬모
 가느닐고 : 김선기

물론 ‘가는닛고’는 15세기 국어의 의문법 ‘가느니잇고’와 형태소 결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대국어에서는 이러한 결합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이를 밝힐 수 없다.²⁰⁾

2.5. 於內秋察早隱風未

2.5.1. ‘於內’는 ‘秋察’을 수식하는 관형사 ‘어느’로 해독하고 있다.

(15) 어니 : 소창진평, 정렬모	오나 : 김선기
어느 : 양주동, 김완진, 홍기문	어나 : 강길운
어느 : 지현영, 이탁, 서재극, 김준영, 유창균	

‘內’는 선어말어미 ‘느’의 차자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느’의 차자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內’는 음이 ‘니’(광천 20, 유합 상 2)이므로 ‘어니’로 해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 ‘어느/어느’는 활발히 쓰였으나 ‘어니’는 그렇지 못하므로 ‘어느/어느’로 읽는다. 향가 표기에 모음조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어느’로 읽는다.

‘於內’는 문맥상 관형사 ‘어느’로 해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부사 ‘어찌’로 해독하여도 문맥상 무리는 없어 보인다. ‘어찌(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가’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어느’는 관형사, 명사 외에 부사로 활발히 활동하다 16세기경 부사로서의 기능이 소실되고 그 의미 기능은 ‘엇데’가 포괄하게 되었다. 이로 미루어 ‘어느’의 의미 기능은 고대국어 당시에도 중세국어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뒤의 ‘毛冬乎’이 의문형이라면

20) 이러한 차이를 박창원(1995:428)은 이두의 문장구조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 논의는 후고로 미루고 있다.

문맥으로 보아 ‘어느’를 의문사 ‘엇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의미 맥락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세국어에서 ‘어느’가 문두에서 의문사로 쓰인 예를 보기 어렵고 동사나 부사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가 되거나 명사 앞에서 관형사로 기능함에 비추어 ‘於內’를 의문사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의 의미 기능으로 보아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전제 아래 ‘於內’를 가설적으로 부사 ‘어느’로 해독한다.

2.5.2. ‘秋察’은 대체로 ‘ㄱ술, ㄱ술’로 해독하고 있는데 정렬모(1965)에서만 ‘ㄱ술철’로 해독되고 있다.

(16) ㄱ술 : 소창진평, 양주동, 지현영, 김완진, 흥기문

가잘 : 김선기

ㄱ술 : 서재극, 김준영, 유창균

고술 : 강길운

ㄱ줄 : 이 탁

ㄱ술철 : 정렬모

향가에 쓰인 ‘가을’의 차자로는 ‘秋察’만 보이고²¹⁾ 달리 표기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察’은 ‘秋’에 해당하는 고대어의 말음첨기로 관용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음가는 15세기 국어의 ‘ㄱ술’로 보아 ‘△’와 동일하거나 가까운 것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察’의 음가²²⁾와 문맥으로 보아 정렬모(1965)와 같이 ‘철’로 읽기는 어렵다. 15세기 국어 형태에 따라 ‘ㄱ술’로 읽는다.

2.5.3. ‘早隱’은 ‘이른’으로 해독될 수밖에 없다. 소창진평(1929)의 ‘일

21) 향가에 쓰인 예는 다음 세 개가 있다.

於內秋察早隱風未(제망매가 5)

秋察戶不冬爾屋支墮米(원가 2)

覺月明丘秋察羅波處也(청전별론가 10)

22) 유창균(1994:719)은 고대국어에서의 ‘察’의 음가를 ‘술(초기)>잘(중기)>찰(후기)’로 추정하고 초기에 토착화된 ‘술’이 차자표기에서는 관습적으로 ‘술’ 표기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흔'과 강길운(1995)의 '니른'은 중세국어의 어형과 거리가 멀다.

(17) 일흔 : 소창진평

일은 : 이 탁, 김선기

이른 : 양주동, 지현영,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유창균, 홍기문, 정렬모

니른 : 강길운

2.5.4. '風末'는 대체로 '브르매, 브르미'로 해독되고, '末'는 '애, 익, 에' 등으로 읽히고 있다.

(18) 브롬애 : 소창진평

바라매 : 김선기

브르매 : 양주동, 지현영, 김완진, 홍기문

바름에 : 강길운

브르미 : 서재극, 김준영, 유창균, 정렬모

브롬 : 이 탁

항가에 나타난 '末'의 다른 용례²³⁾ '心末'(마슴미)에서 '末'는 음가자로 '미'로 읽히지만 이는 '마슴'의 말음 'ㅁ'과 속격의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처격조사의 표기에 쓰인 음가자이다. 명사 중에는 처격 '애/에'와도 결합하지만 '이/의'와만 결합되는 것이 있는데 명사 '브롬'은 이런 부류의 명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애'를 취해 '브롬'의 말음 'ㅁ'과 처격 '애'가 결합된 '매'로 읽는다.

2.6.此矣彼矣浮良落 / 葉如

이 행은 '此矣彼矣 浮良落 / 葉如'과 같이 세 어절로 분석된다.

2.6.1. '此矣彼矣'는 '矣'의 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독하고 있는데

23) 다음과 같은 세 예가 보이는데 모두 '心末'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郎也 慕理尸心未行乎'道尸(모죽지랑가 7)

心未際叱盼遂內良齋(찬기과랑가 8)

心未筆留(예경제불가 1)

- | | |
|-------------------|-------------|
| (19) 이에 더에 : 소창진평 | 이에 저에 : 지현영 |
| 이에 더에 : 양주동, 김완진 | 잉이 덩이 : 김선기 |
| 이에 더에 : 강길운 | 이더 더더 : 유창균 |
| 이에 더에 : 이 탁 | 이디 더디 : 정렬모 |
| 이의 더히 : 서재극 | 이에 제 : 홍기문 |
| 이의 더의 : 김준영 | |

(2.2.1)의 ‘此矣’에 준하여 ‘此’와 ‘彼’는 ‘이’와 ‘더’로 혼독하고, ‘矣’는 ‘에’로 음독하여 ‘이에더에’로 읽는다.

2.6.2. ‘浮良落尸’은 다음과 같이 해독되고 있는데 ‘落’은 동사 ‘다’로 혼독하고, ‘尸’은 관형형 ‘-리’로 해독된다. 따라서 ‘良’은 ‘浮’와 ‘落’을 연결하는 부사형어미이므로 ‘浮良落尸’은 ‘뜨어덜’과 같이 해독할 수 있다.

- | |
|---|
| (20) 떠덜 : 소창진평, 양주동, 지현영, 홍기문, 정렬모, 강길운 |
| 떨아덜 : 김준영 |
| 뜨러덜 : 김완진 |
| 빨아덜 : 김선기 |
| 볼든 : 이 탁 |
| 떠라덜 : 서재극 |
| 브라덜 : 유창균 |

소창진평(1929)등의 ‘떠덜’은 ‘뜨어덜’의 축약형이고, 이탁(1958)의 ‘볼든(벌어 들논)²⁴⁾은 동사어간만의 합성인데 당시에 이러한 형태들이 가능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빨-, 썰-’(浮) 등은 15세기 국어의 ‘뜨-’와 거리가 있다. 12세기 초기의 계림유사는 당시에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어두자음군의 생성시기를 고려하면 ‘浮’를 ‘뜨-’와 같이 혼독할 수는 없지만 이를 대신할 마땅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24) 이탁(1958)은 ‘浮’를 ‘볼-’, ‘落’을 ‘들-’으로 읽고 이를 “벌어 들논 것처럼”으로 해독하였는데 ‘浮’의 의미를 나타내는 ‘볼-’과 같은 형태는 문중되지 않는다.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창균(1994)의 '브라덜-'은 이를 고려한 것인데, 이 '브라덜-'이 '쁘-'로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⁵⁾

2.6.3. '葉如'는 대체로 '如'를 대체로 혼독하여 다음과 같이 해독하고 있는데, '如'가 문법형태소로 음독된 예를 보기 어려우므로 혼독하여야 한다.

(21) 님(히)여 : 소창진평	님 다비 : 김준영
님다이 : 양주동, 지현영	뉘다비 : 강길운
님돏 : 이탁, 유창균	님다이 : 홍기문
님이다 : 김선기	님처로 : 정렬모
님곶 : 서재극, 김완진	

김선기(1993)의 '이다'는 '如'의 독법상, 정렬모(1965)의 '처로'는 (24)와 같이 근대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등장 시기로 보아 회의적이다. 15세기 국어에 비교적 활발히 쓰이고 있는 '다비'는 '답게, 대로'의 의미로 '곶'과 거리가 있다. 유창균(1994)은 '곶'은 '곶이'와 같이 접미사가 따라야 하므로 자수와 음절수의 일치로 보아 '돏'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돏'은 (26)와 같이 동사에 통합되고 명사 뒤에 오는 예가 없으나, '곶'은 (25)와 같이 명사 뒤에 직결되고 있다. '葉如'는 (25)와 같이 '명사(葉)+如'의 구성 이면서 비유적 표현이므로 '如'는 '곶'으로 혼독되어야 한다.

한편, 박창원(1995)는 '어느'가 들어 있는 문장은 (22)와 같이 그 품사와 관계 없이 모두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고려하여 '如'를 의문첨사 '-다'로 해독하고, 이를 2인칭 의문문 '님다'(앞입니까)로 해독하고 있다. 의문첨사 '-다'가 고대국어에서 명사에 직접 결합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 (22) 1. 聖人神力을 어느 다 솔뵈리(용가 87)
 저문 아히 어느 듣즈보리잇고(석보 6:1)
 2. 어느 뉘 講히니(용가 18)

25) 자세한 것은 유창균(1994:721-2) 참조. 그는 '쁘-'가 '블-(吹)과 '들-/들-(落)의 합성형 '븐들-'이나 '브러덜-'이 축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제 다시 산하대지를 냈다 흐더다(능엄 4:37)

3. 어느를 닐은 正法眼고(금삼 2:68)

國王은 오쇼셔 龍王은 겨쇼셔 이 두말을 어늘 從호시려뇨(월석 7:26)

(23) 1. 구호는 이를 뜯다비 일우고(월석 7:45)

2. 法다비 참구하여:如法參究(몽산 21)

3. 제 마슴다비 뜯호는 사람들해(월석 21:96)

(24) 1. 저 모시쳐로 나오리라(청구영언 111)

2. 바람에 풀쳐로 (자훈 4)

3. 신하들 처로 국록 부복호야 뵈옵더 거시니(한중록 112)

(25) 1. 하늬 버리 눈 곧 디니이다:維時天星散落如雪(용가 50)

2. 妻眷이 드외스바 하늘 곧 섬기습더니(월곡 140)

3. 塵沙는 할시니 塵 곧 沙 곧 닷 마리라(금삼 2:15)

(26) 1. 百姓이 저재 가듯 모다 가(월석 2:7)

2. 눈스 므를 비오듯 흘리시고(월석 8:94)

2.7. 一等隱枝良出古

2.7.1. ‘一等隱’은 ‘흐든’ 또는 ‘마튼’ 등으로 해독되고 있는데, 바로 뒤의 ‘枝良’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므로 15세기 국어의 ‘흐나’에 해당하지 않고 수관형사 ‘흔’에 해당한다. 그러나 향가 중의 다른 예 ‘一等下叱’(도천수관음가 6), ‘一等盼’(도천수관음가 6), ‘一等沙’(도천수관음가 8)등은 ‘흐나’로 해독된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흐나’와 ‘흔’의 대립과 달리 고대어에서는 ‘一等’이라는 한 형태가 ‘흐나’와 ‘흔’의 두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7) 한 무리는 : 소창진평

가든 : 김선기

흐든 : 양주동, 지현영,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유창균,²⁶⁾ 홍기문

가튼 : 강길운

26) 유창균(1994:724)은 ‘흐든’을 ‘같은 줄기(幹)’의 뜻으로 보고, 이 뒤에 줄기(幹)를 나타내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다.

ㄱ톤 : 정렬모

하나힌 : 이탁

소창진평(1929)의 ‘한 무리’는 문맥상²⁷⁾, 이탁(1958)의 ‘하나힌’은 독법상 올바른 해독이라 볼 수 없다. 강길운(1995)의 ‘가튼’은 계림유사의 ‘河屯’에 기댄 것인데 ‘흐든’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2.7.2. ‘枝良’는 ‘枝’와 ‘良’의 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독되고 있다.

(28) 가지애 : 소창진평

가지래 : 김선기

가재 : 양주동, 지현영, 홍기문, 정렬모, 강길운

가지라 : 김완진

가자 : 서재극

갓애 : 이 탁, 김준영

가라 : 유창균

‘枝良’은 ‘枝(가지)+良(처격)’의 구성이다. 이를 용비어천가(7장)의 ‘가재’에 기대면 ‘가재’ 또는 ‘가자’로 해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곡용형이 이같은 특수한 교체를 보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지+처격’의 형태로 해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문제는 ‘良’의 독법인데 ‘-애, -래’, ‘라’ 등으로 해독하고 있다. ‘良’이 ‘아/어’의 표기에 널리 쓰인 차차임을 고려하면 ‘가지아’로 읽을 수 있다. 유창균(1994)은 기존의 해독과 달리 ‘枝’를 동사로 보아 ‘枝良’을 ‘가라’²⁸⁾로 읽고 ‘갈라’ 즉 ‘나누어져’의 뜻으로 해독하고 ‘一等隱’ 다음에 줄기(幹)를 나타내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같은 줄기에서) 갈라 태어나서’로 해독하고 있다. ‘枝’의 독법은 새롭지만 줄

27) 물론 ‘한’은 ‘훈’이어야 한다.

28) 유창균(1994)은 ‘枝必岐出也 故古枝岐通用(設文·段註), 枝指謂指有岐也(釋文)’에서 ‘枝’가 ‘岐·指’와 통용되므로 이를 명사 ‘가지’나 ‘갓’이 아닌 ‘分·派·岐·支’의 뜻으로 보아 ‘枝’는 ‘가르’, ‘良’은 ‘라’로 읽고 ‘枝良’을 ‘가라’로 해독하여 ‘갈라’ 즉 ‘나누어져’의 동사로 해석하였다. 자세한 것은 유창균(1994:725-6) 참조.

기 해당 어휘가 생략된 것을 전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7.3. '出古'는 모두 '나고'로 해독이 일치하고 있다. '古'가 '遺'과 더불어 어미 '-고'의 차자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8. 去奴隱處毛冬乎丁

이 행은 '去奴隱處毛冬乎丁'로 분석되는데 '毛冬乎丁'는 대체로 감탄형으로 해독되어 왔으나 서재극(1975)과 이탁(1958)은 의문형으로 해독하고 있다.

2.8.1. '去奴隱'은 '가논'으로 해독한다. 다른 해독과 달리 지현영(1959)은 이를 '가논'으로 해독하고 있는데 이는 '奴'의 독법에 어긋난다. '奴'는 'ㄴ+오'로 분석되고 선어말어미 'ㄴ'의 'ㅇ'가 탈락, 축약된 것이므로 '노'로 읽어야 할 것이다.

2.8.2. '處'는 대체로 '곧'으로 해독하고 있으나 지현영(1947)에서만 '디'로 해독되고 있다.

(29) 곧(을) : 소창진평, 양주동,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강길운, 유창균,
홍기문, 정렬모

곧 : 이 탁

곧간 : 김선기

디 : 지현영

박창원(1995)은 '디'를 형식명사 '드'와 처격조사 '이'로 분석하고, '處'에 '處矣'와 같이 처격 '矣'가 결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쓰였으므로 '드'나 '곧'의 표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處'는 동사 '毛冬乎丁'의 목적어로 대격조사 '乙'이 생략된 것이므로 '드+처격조사'의 형태인 '디'보다는 대격조사 생략형 '드' 또는 '곧'으로 해독해야 할 것이다. 이들 중 '드'는 '곧'에 비하여 거의 독립형으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곧'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2.8.3. '毛冬乎丁'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다양하게 해독되고 대체로 감탄

형으로 해독되고 있으나 이탁(1958)과 서재극(1975)에서는 의문형으로 해독되고 있다.

- | | |
|------------------|-----------------|
| (30) 몰오온덩 : 소장진평 | 몰오덩 : 김선기 |
| 모드온저 : 양주동 | 모드론덩 : 서재극 |
| 모드온더 : 홍기문, 정렬모 | 모돌온더 : 김준영, 유창균 |
| 모드오저 : 지현영 | 모드론더 : 김완진 |
| 몰온든 : 이 탁 | 모돌온더 : 강길운 |

'毛冬'은 '모드-' 또는 '모돌-'로 해독되고 있다. 15세기 국어의 '모르-'만을 고려하면 '모드-'로 해독할 수 있지만, 차자 '毛達'(우적가), '모르-'의 활용형 '몰라'(석보 6:20) 그리고 '不冬(안들)'의 '들' 등을 고려하면 '모돌-'로 해독하여야 된다.

'乎丁'은 '온더, 온덩' 등으로 해독하고 있는데 '온더'로 읽는다. '丁'은 고려 중기와 후기의 구결 토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된 차자로, 접속어미 '-오 丁丁(-년)'에서는 '년'으로, 감탄이나 의문형으로 사용되는 토에서는 '더'로 읽히는 차자이다.

15세기 국어의 종결어미 '-년 더'는 감탄형어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고려시대 구결 자료에서 '-년 더'는 감탄형이나 의문형어미로 해석된다(정재영 1992, 1996). '-년 더'가 고려시대에 감탄형이나 의문형이었음을 고려하면 향가의 '-년 더'도 문맥에 따라 감탄형이나 의문형어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가 중 어미 '-년 더'가 통합된 예는 다음과 같은데

- (31) 1. 去奴隱 處 毛冬乎丁(제망매가 8)
2. 修叱陽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수회공덕가 5)
3. 久內直隱跡烏隱 現乎陽丁(도이장가)

이들은 감탄문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31.2-3)과 달리 '毛冬乎丁'은 주체를 '나' 월명사로 잡고 '모르는구나'와 같이 감탄형으로 해석하면 이는 바로 다음 구의 '彌陀利良 逢乎吾'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곧 네가 가는 곳을 모르겠다고 하곤 곧 이어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

을 기약하는 것은 모순이다.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노래는 작자가 죽은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면서 부른 노래로 누이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백 형식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독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누이와 나의 대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전체 구성과 문맥으로 보아 월명사가 죽은 누이에게 계속하여 독백형식으로 말하는 구조로 파악하여야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의문문인 4행에 이어 8행도 감탄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가는 곳을 모르는가’ 정도의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관점에서 다음의 9-10구와 자연스럽게 호응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毛冬乎丁’을 고려시대의 의문형 ‘-너 더’에 비추어 ‘모든 더’로 읽고 ‘모르는가’의 의문형으로 해독한다(정재영 1995). ‘毛冬乎丁’을 ‘-너 더’ 의문형으로 해독할 때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의문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문이 따른다. 그러나 이것은 고려시대의 의문형어미 ‘-너 더’가 14세기 말 경 완전히 소멸(정재영 1995)되었기 때문이다.

‘毛冬乎丁’을 의문형으로 해석하면 5-8행은 ‘어찌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지기 떠다니다 떨어지는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가’ 정도로 해석된다. 즉 의문형식을 통해 죽은 누이가 가는 곳을 모르는 것 같은데 어찌 네가 갈 곳을 모르느냐의 의미로, 너는 나와 헤어지지만 극락으로 갈 것임을 반어적 의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누이가 극락세계로 갈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미타찰에서(9-10행) 나와의 재회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2.9. 阿也 彌陀刹良逢乎 �

이 행은 대부분 ‘阿也 彌陀刹良逢乎 �’로 분석하고 있으나 ‘逢乎’와 ‘�’의 독법에 따라 ‘阿也 彌陀刹良逢乎’에서 끊고 ‘�’를 다음 행으로 옮겨 해독하기도 한다(홍기문, 이탁, 박창원).

2.9.1. ‘阿也’는 감탄사로 다음과 같이 소창진평(1929)만 한자어 ‘阿也’로 읽고, 김완진(1980)의 ‘아야’ 외에는 ‘아, 아으, 아라’ 등의 감탄사로 읽고 있다. 표기에 충실하게 ‘아야’로 읽는다.

(32) 阿也 : 소창진평

아라 : 이탁, 강길운, 유창균, 정렬모

아으 : 양주동, 지현영, 서재극, 홍기문

아 : 김준영

아이 : 김선기

아야 : 김완진

2.9.2. '彌陀刹'은 대체로 음독하고 있는데, '刹'은 '덜', '절'로 혼독되기도 한다(김선기, 정렬모). '良'은 '아', '애', 또는 '라'로 해독되고 있다(박창원 1995).

(33) 彌陀刹애 : 소창진평, 양주동, 지현영, 이탁, 김준영, 강길운, 홍기문

彌陀刹이라 : 유창균

미따 덜애 : 김선기

彌陀刹아 : 서재극, 김완진

미다절애 : 정렬모

유창균(1994)은 '良'을 서술형 '-이-+라'로 읽고 구속형어미('-이기 때문에')로 해독하고 있다. 그러나 향가에 쓰인 차자 '良' 중 서술형 '-이라'로 해독되는 예는 (34)와 같고 (35)와 같이 장소성 명사 뒤에서 처격으로 해독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彌陀刹+처격조사'로 분석한다.

(34) 1. 阿邪也 吾良遣知支腸尸等隱(도천수관음가 9)

2. 二于萬隱吾羅(도천수관음가 7)

3. 法性叱宅阿叱寶良(보개회향가 7)

(35) 1. 東京明明月良(처용가 1)

2. 一隱枝良出古(11.7)

2.9.3. '逢乎'는 대체로 '맞보을'로 해독되고 있으나 '逢'을 '맞-'으로 읽어 '맞+온'으로 읽는다.

(36) 맞나온 : 소창진평

맞오 : 이탁

맛보을 : 양주동, 지현영
 맛보을 : 김완진
 맛보은 : 김준영
 맛은 : 김선기

마조 : 서재극, 정렬모
 맛불 : 강길운
 맛본 : 유창균
 맛보호 : 홍기문

‘逢乎’는 대부분 ‘湄’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분석하여 왔으나, 이탁(1958)은 ‘湄’를 10행으로 옮기고 뒤에 종결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서재극(1979)은 ‘마주보도록(만나도록)’으로, 정렬모(1965)는 ‘함께, 같이’와 같은 부사로 해석하였다. 박창원(1995)은 그 동안 관형어로 해석하여 온 ‘逢乎’를 ‘만날 것’을 뜻하는 동명사로 보고 ‘待是古如’의 목적어로 봄으로써 새로운 해독을 시도하고 있다. 9행을 기존의 분석 방법에 따라 분절하고 이에 따라 ‘逢乎’는 관형어로 해독한다.

2.9.4. ‘湄’는 ‘나’로 훈독하여야 한다. 정렬모(1965)는 이를 동사 ‘낳(生)’의 훈가자로 읽고 있으나 해독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

- (37) 나 : 소창진평, 김선기,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강길운, 유창균
 내 : 양주동, 지현영, 이 탁, 홍기문
 나²⁹⁾:정렬모

‘湄’는 주어라면 ‘나’ 또는 ‘내’로 해독되지만, 관형어라면 속격의 ‘내’로 해독된다.³⁰⁾ ‘湄’는 대체로 주어로 해독되어 왔다. 그러나 홍기문(1956)과 이탁(1958)은 이를 ‘道’의 관형어 ‘내’로 해독하고, 박창원(1995)은 ‘湄道’를 한 단어로 분석하고 ‘성인의 도’로 해석하였다.

‘湄’를 주어 또는 관형어로 해독하는 것은 ‘待是古如’의 주체가 월명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죽은 누이가 주체라면 ‘湄’는 주어나 관형어로 해독할 수 없는 것이다. 목적어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湄’의 의미 기

29) 정렬모(1965:276)는 ‘湄’를 동사 ‘낳(生)’의 차자로 보았으므로 별도로 제시한다.

30) 향가에 쓰인 ‘湄’ 중 관형어로 쓰인 경우 ‘湄下’(처용가 5,7)에서는 ‘湄’가 단독으로 쓰였지만은 그 외는 ‘湄衣身’(수회공덕가 4, 보개회향가 10), 湄衣修此孫丁(수회공덕가 5), 湄衣願’(총결무진가 2)와 같이 속격의 ‘衣’가 통합되어 있다.

능은 ‘待是古如’의 해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10. 道修良待是古如

이 행은 ‘道 修良 待是古如’로 분절되지만 ‘끔’을 이 행의 처음으로 옮겨 ‘끔道修良待是古如’로 분절하기도 한다.

2.10.1. ‘道’는 대체로 음독하고 있으나 ‘길, 깔’로 훈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道’는 ‘佛道’의 ‘道’이므로 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렬모(1965)의 ‘길’은 ‘道’를 훈독자로 읽은 것이 아니고 ‘修良’과 함께 부사 ‘길거리’의 ‘길’의 음가자로 해독한 것인데 해독의 원리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 (38) 道(를) : 소창진평, 양주동,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유창균, 홍기문
 길 : 지현영, 이 탁
 깔 : 김선기
 도 : 강길운
 길 : 정렬모

2.10.2. ‘修良’은 다음과 같이 해독되고 있는데 15세기 국어의 ‘닷가-’에 비추어 ‘닷가’로 해독할 수 있다. 그러나 ‘良’을 ‘라’로 보면 ‘닷가라’ 또는 ‘닷가 라’와 같이 읽을 수 있다(박창원 1995).

- (39) 닷가 : 소창진평
 다스라 : 유창균
 닷가 : 양주동, 지현영, 김선기,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강길운, 홍기문
 닷아 : 이 탁
 기리 : 정렬모

정렬모(1965)의 ‘기리’(길이길이)³¹⁾는 용자법과 거리가 멀다. 유창균(1994)은 ‘修’를 ‘治·理’³²⁾와 같은 ‘다슬-’로 보아 ‘다스라’로 해독하고

있다. '良'이 흔히 부사형 '아어'의 차자였음을 고려하여 '닷가'로 읽는다.

2.10.3. '待是古如'는 다음과 같이 해독되고 있는데 '기다리고다, 기돌이 고다'는 15세기 국어의 '기드리-'와 '기드리고시, 고이고드'의 '시'와 '드'는 어말어미 '如'의 독법과 거리가 있다.

(40) 기다리고다 : 소창진평, 지헌영

기돌이다 : 김선기

기드리고다 : 양주동, 이탁, 서재극, 김준영, 김완진, 유창균, 홍기문

기드리고셔 : 강길운

고이고드 : 정렬모

'古如'는 대체로 15세기 국어 명령형 어미 '-고라'의 이전형으로 해석되어 왔다. 양주동(1965)이 '원망'의 의미로 해석³³⁾한 것이나 지헌영(1947)이 명령형으로 해석한 것은 15세기 국어의 '고라'의 의미 기능에 바탕한 것이다. 김완진(1980:127)은 '古'를 '미래'의 의미로, 안병희(1987:1070)은 '원망'과 '추정'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³⁴⁾ '古'의 의미가 '미래'나 '원망'이라는 의미 기능 나아가 '古如'의 문법 기능이 무엇인가는 마지막 9-10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待是古如'와 바

31) 정렬모(1965:275-6)은 '修'는 字書에서, '良'은 博雅에서 <長也>라 한 것을 근거로 '修'와 '良'을 '길다(長)'로 보아 부사 '길기리'(길이길이)의 '기리'로 해독하였다.

32) 유창균(1994:733-4)은 '良'을 '라'로 읽기 위하여는 '修'를 '治·理'의 '다술'로 읽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해독의 근거로 다음을 들었다.

修 治也(廣雅·釋詁三)

修道之謂教[注] 修治也(禮傳·中康)

聖人之所在 則天下理焉[注] 理,治(呂覽·勤學)

33) 양주동(1965)은 '古如'를 원망조사 '고라'와 통용된다고 보고 '원망'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이런 의미는 '고다' 자체의 것이 아니고 '고라, 고시라'의 '라'에 있다고 보았다.

34) 이 외에 '古'를 중세국어의 확인법 어미 '-거-'와 관련지어 '古如'를 15세기의 '거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승재(1991:454) 참조.

로 앞 행의 ‘ㅁ’의 통사 관계가 무엇인가로 귀착된다. 곧 ‘ㅁ’를 ‘待是古如’의 주어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古如’의 의미가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9-10행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道 님아 기다리겠노라’로 해독되고, ‘나’는 기다림의 주체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미심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미타찰’은 죽은 누이와 월명사가 재회할 장소로 저승에 있으므로 기다림의 주체가 월명사라면 ‘미타찰’에서 만날 대상은 ‘나’가 아니라 ‘누이’다. 곧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너(를) (나는) 道 님아 기다리겠노라’의 구조로 해석된다. 국어의 통사 구조상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를 (나는) 道 님으며 기다리겠노라’의 만날 대상은 ‘너’이지 ‘나’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상에 대응되는 차자는 ‘너’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나’(월명사)에 대응되는 ‘ㅁ’다. 따라서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를 道 님으며 기다리-’에서 ‘나’는 기다림의 대상이므로 기다림의 주체는 ‘너’인 ‘누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기다림의 주체를 ‘누이’로 해석하면 9-10행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를) (너는) 道 님으며 기다리-’로 해석되는데 이 때 ‘기다리-’에 통합되는 어미는 문맥으로 보아 전통적으로 해석된 ‘미래’나 ‘추측’을 뜻하는 어미일 수는 없다.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를) (너는) 道 님으며 기다리-’에서 ‘기다리-’는 문맥상 명령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古如’를 ‘원망’의 뜻을 지닌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문맥은 자연스러워진다(김영옥1995).³⁵⁾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 ‘古如’의 의미 기능이 15세기 국어의 ‘고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고라’가 중세국어에서 ‘원망’의 명령형 어미로 활발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古如’와 ‘고라’가 ‘고’를 공통으로 하고 의미 기능이 동일한 것은 이 둘이 비록 표기 형태는 ‘고다’³⁶⁾와 ‘고라’로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그 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현재의 고대국어 지식으로는 ‘如’와 ‘라’의 음운론적 대응 관계를 밝힐 수 없지만 그

35) 김영옥(1995:105-113)은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 ‘古如’를 [청원]의 의미를 지닌 명령형으로 파악하고, 안민가의 ‘知古如’도 이와 같이 해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6) 향찰에서 어미 ‘如’가 ‘라’로 읽혔는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차자의 독법으로는 ‘如’는 ‘다’로 읽을 수 밖에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영옥(199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두 '岐如(가르라)'(이문대사 3장)에서 '如'가 '라'로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爲良如'의 '如'도 참고할 수 있다. 문맥으로 보아 'ㅎ야라'로 해독되기 때문이다(서종학 1993).

III

제망매가의 행과 구의 구분은 대체로 10구체로 분절되어 삼국유사의 기록과 차이가 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³⁷⁾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분절에 따라 지금까지의 해독을 검토하면서 부분적으로 종래의 해독과 의견을 달리하며 새로운 해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4행의 '毛如'를 '如'의 문자운용에 비추어 '명사+如'의 구성으로 분석하여 '털곧'으로 해독하고, 8행의 '毛冬乎丁'은 고려시대의 구결에 나타나는 의문형어미 '-ᄃᆞᆫ'(-ᄃᆞ)에 비추어 의문형으로 해독하면서 5행의 '於內'가 의문형 '毛冬乎丁'에 호응되는 의문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9행의 '逢乎'와 10행의 '待是古如'의 주체를 누이로 보아 '古如'를 원망의 명령형어미로 해독하였다.

이상의 해독은 이 노래의 의미 구조를 월명사가 누이에게 독백 형식으로

37) 이 중 대표적인 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행: 此矣 有阿米 次盼伊遣(소창진평 외)

此矣 有阿 米次盼伊遣(이탁, 김선기)

此矣 有阿米 次盼 伊遣(정창일)

此矣 有阿 米 次盼 伊遣(박창원)

3행: 吾隱 去內如 辭叱都(소창진평 외)

吾隱 去內如(叱) 辭(叱)都(박창원)

9행: 阿也 彌陀剎良 逢乎 吾(소창진평 외)

阿也 彌陀剎良 逢乎(이탁, 홍기문, 박창원)

10행: 道 修良 待是古如(소창진평 외)

吾 道 修良 待是古如(이탁, 홍기문)

吾道 修良 待是古如(박창원)

질문하고 부탁하는 형태로 보아 종래의 '의문-감탄-서술'과 달리 '의문-의문-명령'으로 파악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위에서의 논의에 따라 제망매가의 해독과 현대어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42) 생사 길흔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는다 마룻도
털곤 니르고 가느닛고
어느 그술 이른 보르민
이에더에 쓰어딜 님곤
흐든 가지아 나고
가는 곧 모듈온더
아으 彌陀刹아 마즌 내
道 님아 기드리고다

(43) 생사 길이

여기에 있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털같이 이르고 가는 것인가
어찌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가
아아, 미타찰에 만날 나를
道 님아 기다리기 바라노라.

참 고 문 헌

강길운(1995), 『향가신해독 연구』, 학문사.

고정의(1991), 차자 '毛冬'과 '毛如', 『울산어문논집』 제7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선기(1993), 『옛적 노래의 새풀이』, 보성문화사.
- 김영욱(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 김완진(1985), 특이한 음독자 및 훈독자에 대한 연구, 『동양학』 1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김준영(1987),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 연구』, 단국대 출판부.
- 남풍현(1990), 고려말·조선초기의 구결연구,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 남광우(1971), 『고어 사전』, 일조각.
- 남풍현(1976),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 남풍현(1991), 삼국시대의 언어와 문자생활, 『한국사상사대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남풍현(1993), 차자표기와 고대국어의 어형,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 박창원(1995), 제망매가의 해독과 고대국어의 몇 의문,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 서재극(1975), 『신라가요의 어휘 연구』, 계명대 출판부.
- 서종학(1991), 이두의 문법형태표기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소창진평(1929), 『향가 및 이두의 연구』.
- 안병희(1987), 『한국학 기초자료선집:어학편』, 한국정신문화원.
- 양주동(1965),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기문(1991), 고대국어 연구와 한자의 새김 문제, 『진단학보』 67, 진단학회.
- 이기문(1991), 삼국시대의 언어와 문자생활, 『한국사상사 대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승재(1991), 향가의 遣只賜와 구역인왕경 구결의 고지시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국어학총서 17, 태학사.
- 이승재(1993), 여말선초의 구결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이승재(1994), 고려 중기 구결자료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78, 진단학

회.

이종철(1983), 『향가와 만엽집가의 표기법 비교 연구』, 집문당.

이 탁(1958), 향가신해독, 『국어학논고』, 정음사.

정렬모(1965), 『향가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정재영(1992), 통합형어미 '-ㄴ'과 '-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2, 국어학회.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국어학회.

지헌영(1947),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홍기문(1956), 『향가해석』, 과학원 출판사.